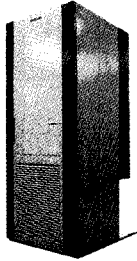


삼성전자, 모바일 와이맥스 국제 공인 인증 획득



삼성전자 모바일 와이맥스 (Mobile Wimax, 와이브로) 제품이 처음으로 '와이맥스 포럼 (Wimax Forum)'으로부터 국제 공인 인증을 획득, 기술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와이맥스 포럼'은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모바일 와이맥스를 비롯한 와이맥스 기술 표준과 인증 전반을 관장하는 국제 단체이다. '와이맥스 포럼'은 이동 통신사, 장비 업체 등 520여개 이상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와이맥스 포럼에서 모바일 와이맥스 제품을 공식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모바일 와이맥스 제품은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통용되기 위한 기본 성능과 호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KT도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품질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현재 국내 KT 와이브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와이맥스 웨이브 1 기지국과 자체 개발한 모뎀 칩셋을 사용한 PC카드 형태의 단말기다. 삼성전자와 KT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와이맥스를 상용화한데 이어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이번 공인 인증을 이끌어 냈다.

모바일 와이맥스는 2007년 10월 차세대 통신 기술인 IMT-2000의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와이맥스 포럼의 국제 공인 인증을 계기로 세계 시장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최지성 사장은 "그 동안 모바일 와이맥스 분야의 기술 표준 확립과 제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며 "모바일 와이맥스 웨이브2 제품 인증도 조기 획득하여 모바일 와이맥스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4월 9~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와이맥스 포럼 콩그레스 아시아 (WiMAX Forum Congress Asia 2008)' 행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뉴욕을 비롯한 워싱턴, 볼티모어 등 미국 동부 6개 도시에 미국 스프린트네트웍스의 모바일 와이맥스 사업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축중

이다. 지난 달에는 일본 UQ커뮤니케이션스에 모바일 와이맥스 상용 장비를 공급기로 하는 등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 블랙라벨 시리즈 3탄 최초 공개



LG전자의 '블랙라벨(Black Label) 시리즈' 3탄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이번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2,50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휴대용 업계에 디자인 열풍을 일으킨 초콜릿폰(1탄), 사인폰(2탄)의 후속작.

LG전자가 7일 공개한 블랙라벨 시리즈 신제품은 ▲탄소 섬유 등 신소재를 적용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고화소 카메라 등 첨단 기능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이 제품의 제품 컨셉트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스타일(style that lasts)'로 설정해 디자인을 구현했다.

삼성전자 주요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네덜란드에서 'SOUL' 프리미엄 마케팅	2008/03/17
2	삼성전자, '미니스커트 시즌2' 출시	2008/03/17
3	삼성 파브(PAVV), 소비자 초청 론칭 행사 열어	2008/03/17
4	디지털프라자에서 뺑 굶는 뽀빠가 솔솔	2008/03/13
5	삼성전자, '에니콜 햅틱폰' 마케팅 본격 가동	2008/03/13
6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DVD 캠코더 출시	2008/03/13
7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최고혁신상(Comfort & Design Award) 수상	2008/03/12
8	롤라 대통령, 삼성전자 브라질 사업장 방문	2008/03/06
9	WCG 2008 삼성 유료 챔피언십 개막	2008/03/06
10	삼성전자, B2B 전략제품으로 세계최고 IT기업 도약 선언	2008/03/04

LG전자 주요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평판TV 아심작, 불고객 찾아 나선다	2008/03/17
2	LG전자, '뷰티 핑크' 출시	2008/03/14
3	LG전자, 美 터치스크린 휴대폰 시장 맹활약	2008/03/12
4	LG전자,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본부에 4억 전달	2008/03/12
5	LG전자, 휘센 에어컨은 갤러리에서 구입하세요	2008/03/11
6	컬럼비아 MBA, LG전자 방문	2008/03/11
7	LG전자, 2년 연속 임금동결 타결	2008/03/10
8	LG전자, 엑스캔버스 TV 특별가 공급	2008/03/07
9	LG전자, LCD모니터, 유럽 북미에서 호평	2008/03/06
10	LG디오스, 전기 부담 더 줄였다	2008/03/04

이번 제품은 전작들에 비해 디자인과 기능 양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된 면모를 자랑한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첨단 신소재인 탄소 섬유(Carbon Fiber)와 강화 유리(Tempered Glass)를 적용, 디자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 환경으로 인한 제품 외관 손상을 방지했다.

제품 뒷면에 적용된 탄소 섬유는 가볍고 단단해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어 언제나 새것 같은 외관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갈색 계열의 독특한 무늬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맛을 더했다.

휴대폰 업계에서는 최초로 적용된 탄소 섬유는 벤츠의 프리미엄 브랜드 '마이 바흐'와 BMW 등 최고급 자동차의 차체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전면 LCD 화면에는 강화 유리를 적용, 흡입으로 인한 화면 손상을 막아 처음의 선명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능 측면에서도 5백만 화소 카메라 등 첨단 기능을 탑재했다.

블랙라벨 시리즈 3번째 제품의 명칭(Pet Name)은 이달 말 공개되며, 이에 맞춰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국내시장에는 하반기에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번 제품으로 전세계에서 각각 1,800만대와 700만대 이상이 판매된 초콜릿 폰과 사인폰을 비롯해, 프라다폰이 구축한 '휴대폰 디자인은 LG'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LG전자 안승권(安承權) MC사업본부장은 "블랙라벨 시리즈 3단은 LG전자의 누적된 디자인 경쟁력과 첨단 기술력을 결집한 제품"이라며 "초콜릿폰, 사인폰에 이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 경향하우징페어' 홈네트워크 전문회사 코콤



코콤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주축으로 홈 오토메이션, 홈 시큐어리 시스템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HOME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첨단 제품들을 자동화된 첨단제조 시설로 생산하고 있다.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직다이얼 방식의 무인경비시스템과 일변전화 및 휴대폰으로도 통화가 가능한 편리하고 다양한 텔레폰 방식의 무인경비시스템, 코콤은 간편한 시공으로 최첨단 디지털 방식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제공해 준다. 박스 매입이 필요 없고 배선이 간단하여 시공이 편리한 복합식 무인경비시스템, 종합분배기를 사용하여 종합관리가 가능한 중계기 방식의 무인경비시스템, 중앙관리실의 주장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주장치 방식의 무인경비시스템- 주거지역의 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최적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완벽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상의 주거 문화를 실현한다.

잘만테크, 입체·평면 겸용 모니터... 3D게임도 척척



컴퓨터용 냉각기를 생산하는 잘만테크(대표 이

영필)가 2D·3D 변환 LCD 모니터를 개발했다. 잘만테크의 트리몬 2D·3D 겸용 모니터는 특수제작된 필터안경을 사용해 3D 콘텐츠를 입체로 즐길 수 있는 모니터다. 입체·평면 전환은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데스크톱 모니터 대신 사용할 수 있고 3D게임, 입체 설계·동영상·영화·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D 시야각은 좌우 90도, 상하 10~12도에 맞춰졌다.

잘만테크는 그래픽카드 칩셋 회사인 미국 엔비디아와 3D 전용 드라이버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현지 지사를 통해 52개국에 3D 모니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은 기존 일반 모니터에 비해 다소 고가인 반면 동종 제품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기존은 현재 19인치와 22인치가 개발됐으며, 이르면 다음달 24인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노틸러스효성,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본격 가동



노틸러스효성(www.natilushyosung.co.kr : 대표이사 류필규)이 국내 은행에 대한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노틸러스효성은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신상훈)과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6월부터 2,300여 대의 점외자동화기기에 대한 토탈아웃소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해부터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여 주사업자로 노틸러스효성을 선정하였으며, 부사업자로 LG CNS와 청호컴넷을 각각 선정하였다.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직접 기기를 보유하지 않고 토탈아웃소싱 업체에 사용료를 내고 자동화기기, 부스 등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현금관리, 장애관리, 시설물관리, 유지보수, 자동화기기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기 운영 전반의 업무를 토탈아웃소싱 업체가 수행하게 되어, 금융기관은 본래의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 도입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본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자동화기기 관리 전반의 프로세스 향상, 비용절감 극대화 뿐 아니라 자동화기기 종합관리시스템(ATMS) 기반하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과 대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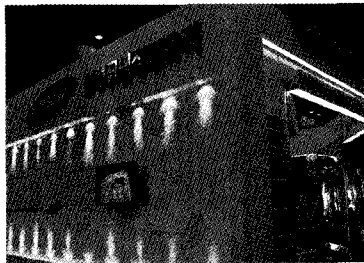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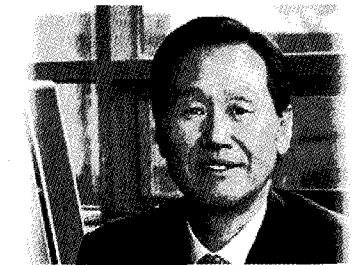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는 지난 2~3년 동안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진행됐지만, 그 동안 도입 효과 검증, 신권 지폐 발행 계획 등 인력의 변수로 본격적인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2006년 하나은행의 점의 자동화기기 대상 토탈아웃소싱 사업자 선정을 통해 시장의 물꼬를 튼 데 이어, 올해 6월 신한은행의 본격적인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서비스가 시행 됨에 따라 향후 금융 서비스 사업의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 농협 등이 토탈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체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틸러스효성은 2006년 하나은행 토탈아웃소싱 주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금번 신한은행의 토탈아웃소싱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수행함에 따라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으며, 일본 자동화기기 토탈아웃소싱 사업의 선두주자인 ATM사와의 업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자동화기기 아웃소싱 사업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코닝정밀유리, 2007년 PDP필터시장 점유율 세계1위 달성



디스플레이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최근 발간한 'PDP 필터 시장분석 및 전망(2008~2012)' 리포트에서 삼성코닝정밀유리가 2007년 PDP필터 시장에서 출하수량 약 2.9백만대로, 시장점유율 1위(25%)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PDP TV의 필수부품으로 전자파 차폐와 근적외선 차단 등의 용도로 PDP TV의 전면에 부착되는 PDP필터시장은 일본의 아사히글라스(AGC), 미쯔이화학, 브릿지스톤 등과 국내의 삼성코닝정밀유리, SKC Hass, LG화학 등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국의 산리아, 옴톤, 톤티아 등 로컬업체들도 이 분야에 새로이 진입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2006년 약2백만대, 시장 점유율 21%로 AGC, 미쯔이화학에 이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PDP필터시장은 PDP TV

의 가격 인하로 인하여, 원가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2008년에 들어서면서, 2007년 PDP필터 출하실적 3위인 일본의 미쯔이 화학은 업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전략적 고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사업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위 PDP필터업체들은 2008년에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PDP필터업체들은 차별화된 원가와 품질을 가지고 경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가절감을 위하여 마쯔이사와 삼성 등 PDP TV 업체들은 향후 필름필터를 채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필터업체들과 광학필름업체 등 공급사슬에 포함된 회사들은 이에 대응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엔시스, 중국에 ATM 2,500대 수출 계약 체결



IT인프라 전문기업 LG엔시스(대표이사:정태수, www.lgnsys.com)가 중국 북경형인금융과기유한공사와 ATM 2,500여 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번에 LG엔시스가 제품을 공급하게 될 북경형인금융과기유한공사(중국어명: 北京恒?科技有限公司, 대표: 장하오란(江浩然))는 중국 카드업계 1위 기업인 형바오유한공사(恒寶有限公司)의 자회사로서, 금융자동화 설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내 금융IT전문 회사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말까지 LG엔시스로부터 ATM 2,500대를 제공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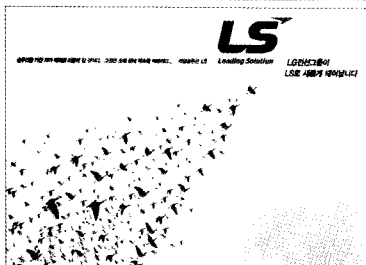
LG엔시스가 수출하게 될 신제품 수출형 ATM

세트는 로비타입과 월타입 등 총 4종의 ATM Full line-up을 망라하게 되는데, 사용 편의성 및 보안성 강화, 친환경 소재 적용은 물론이고, 국제 표준에 맞춰 선진형 매키트로닉스 기술 기반의 지폐방출 모듈을 탑재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상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LG엔시스는 그간 자체 개발한 매키트로닉스 기술을 기반으로 전세계 금융자동화 시장을 타겟으로 한 하이엔드급 지폐방출 모듈인 "ezCDM 3200A"와 수출형 ATM 세트를 1년 여 간 개발하여 이번 4월에 첫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LG엔시스 정태수 대표이사는 "이번 북경형인 금융과기유한공사와의 ATM 공급계약을 발판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제품 개발과 해외마케팅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LS전선, "Open Innovation(개방형 기술혁신)" 선언



LS전선(대표 구자열)은 핵심 기술 개발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Open Innovation(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S전선은 국내 우수 연구원과 대학, 고객사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술 중계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LS전선이 향후 아웃소싱할 핵심 기술들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자동차 전장, 전자부품, 친환경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초전도 케이블, 자동차 용 고전압 유니트 기술 등 약 40여 건에 이른다.

조준형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CTO)은 "2010년에는 기술 아웃소싱에 대한 투자를 총 R&D 비용의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핵심 기술 수준을 매년 30%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특히 글로벌 기술 중계 업체의 활용은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추진해 온 선진적인 기술 아웃소싱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술의 융, 복합화가 심화되고 기업간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부에서의 R&D를 중시하는 기존의 폐쇄형 기술 혁신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비용과 투자로 짧은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P&G의 경우 제품 개발 아이디어나 핵심 기술을 내부 연구 인력의 200배에 이르는 150만 명의 외부 연구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5년간 R&D 생산성을 60% 이상 증가시키기도 했다.

LS전선은 지난 해 '고휘도 반사 편광필름(CLC)' 등20여 건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사내 여러 부서간에 기술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는 "T- Forum"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개방형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립스 사티넬 아이스 프리미엄, '사티넬 알파걸 컨테스트' 개최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테크놀로지 선도기업 필립스전자(대표이사 사장: 김태영)는 사티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4월 3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사티넬 아이스 프리미엄을 대표할 수 있는 '사티넬 알파걸 컨테스트'

(www.satinelle.philips.co.kr)를 개최한다.

프리미엄 제모기 사티넬의 일반인 홍보대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사티넬 알파걸 컨테스트'는 필립스 사티넬 홈페이지(www.satinelle.philips.co.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 중 1차 서류 심사와 예심을 통해 선발된 3명의 후보들은 케이블 채널 동아TV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티넬 알파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시청자들의 투표와 내부 심사를 종합하여 선정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4월 16일까지며, 20~29세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신감 넘치는 알파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작년 필립스 사티넬 아이스 프리미엄 홍보 대사였던 윤은혜의 뒤를 이어 1년간 사티넬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필립스가 후원하는 꿈의 그랑프리 F-1 레이스를 참관하는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필립스전자 소비자라이프 부문 김영진 부사장은 "이번 컨테스트는 소비자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헬스케어, 조명,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브랜드 약속 '센스 앤 심플리시티 (sense and simplicity)'를 근간으로 인간 중심의 다양한 첨단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필립스는 전 세계 60여 국에 걸쳐 약 123,800명의 종업원과 함께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매출액은 270억 유로이며, 의료 진단 영상 및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조명 솔루션, 그리고 개인의 웰빙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분야를 의료 진단 영상 및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조명장치와 개인 및 가전 용품, 가전 등 개개인의 웰빙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